

교양교육원은 2021년 상반기 ‘공통교양 <글쓰기> 보고서 및 에세이 공모전’을 시행하고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수의 참가자가 공통교양 <글쓰기> 수강으로 연마한 ‘학문적 글쓰기’의 역량을 발휘한 결과물을 출품하였고, 교양교육원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확정하였습니다.

2차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정리하여 게시합니다. <글쓰기> 수강생을 포함, 대학이라는 학문 공동체에서 글로 소통하고자 하는 고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반 부문의 심사평입니다.

보고서의 경우,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능동적으로 탐구 방법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탐구 자세가 돋보였다는 평입니다. 반면 주제에 접근하는 시각의 독자성이 부족하고, 제시된 결론이 단선적이고 포괄적인 상식 수준에 머물고 있어 탐구의 의미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논거의 불충분함과 논지 전개의 산만함 또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심사위원의 조언입니다.

에세이의 경우, 무엇보다도 글의 짜임새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어떻게 배치해야 글의 주제를 응집력 있고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 상념이나 느낌을 열거하기보다 개인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독창적으로 의미화할 때 독자의 공감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보고서 부문의 심사평입니다.

글쓰기 전략과 보고서 구성 방법을 글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자료 출처를 밝히고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하는 등 글쓰기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작품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참신한 주제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진행이 필요하다는 심사위원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보고서 부문 총장상과 교무부총장상의 수상작은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작품이 없어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고대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전과 참여를 기다립니다.